

파견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프랑스
	대학명	리옹2대
파견기간	2023 년 1월 ~ 2023 년 6월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프랑스어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학기과 2023년 1학기를 교환학생 신분으로 프랑스에 머물렀습니다. 2022년도 1학기는 보르도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고 휴학 후 6개월 더, 총 1년을 보르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환학생 선발 면접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고 국제교류본부에 문의한 결과,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면 프랑스에서도 교환학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환학생은 총 1년, 즉 최대 2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었고 저는 보르도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한학기 밖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재신청할 수 있었고 시차를 맞춰 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1학기 리옹2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한국이 아닌 프랑스 보르도에서 리옹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저는 2022년 1월 초에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에 ‘캐롯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계약기간이었으며 2022년 1학기 교환학생 수학기간 종료 후에도 프랑스에 더 머무를 계획이었기에 기존 보험을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1학기 교환학생 출국 전 비자신청 과정도 꽤나 까다로웠다고 생각하였지만 2023년 1학기 교환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비자 신청과정에 약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사관 면접을 예약하는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몇몇 학생들은 개인거래를 통해 돈을 주고 자리를 샀다고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2022년 1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딱 5개월의 비자를 받고 출국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더 머무를 결심을 한 후 프랑스에서 4월에 체류증 연장을 신청하였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년짜리 체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체류증 연장 신청은 비자만료 두달 전까지 신청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낸다고 하지만 저는 기존 비자 만료 한달 반 전에 신청하였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

있습니다. 체류증 연장을 할 경우 PDF 파일로 임시체류증을 받게 되고 그 후 경시청에 방문하여 체류증 실물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75유로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물 체류증 카드를 발급까지에는 최소 두달이 걸리며 저는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2022년 1학기에 출국 할 때 28인치 캐리어(30KG)와 큰 더플백(10~15KG), 백팩 하나를 들고 입국하였습니다. 1년 간의 보르도 생활 동안 짐이 조금 늘어나서 캐리어 하나를 더 구매하여 총 캐리어 두 개, 더플백 하나, 백팩 하나를 들고 리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낮선 타지로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이런 저런 물건들을 많이 챙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프랑스 석회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필터 샤워기를 챙기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정말 예민하고 프랑스 제품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닌 이상 갖고 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랑스 생활을 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물건은 미니전기밥솥입니다. 첫 한 학기는 밥솥 없이 냄비밥을 해먹으며 생활했지만 먼저 귀국하는 친구에게서 미니전기밥솥을 얻은 후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한국과 똑같은 맛의 밥을 맛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기숙사 및 원룸에는 에어컨이 없기에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 여름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1년 간의 교환학생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선풍기는 필수입니다. 20-30유로면 큰 마트에서 선풍기를 구매할 수 있고, 중고거래를 통해 10-15유로 정도에 선풍기를 구매하는 학생들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프랑스 콘센트는 한국 콘센트와 달리 위쪽에 작은 막대기 같은게 하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프랑스 콘센트는 이를 위해 구멍이 하나 더 뚫려있으며 한국에서 콘센트를 가져 갈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 구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흔히들 프랑스인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제가 본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랑스언어문화학과이지만 교환학생을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랑스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유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어만 사용해도 프랑스에서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프랑스어보다 영어가 더 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프랑스어를 쓰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와서 정말 놀란 점은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어떤 도로든 프랑스 내에서는 철저히 사람이 차보다 우선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모든 차가 주행을 멈추기 때문에 자유롭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말 여유롭고 자유롭습니다. 여름이 되면 강가, 잔디밭에서 맥주나 와인을 곁들이며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고 바와 식당 테라스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담배를 피며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식당에서 서버를 부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서버가 테이블로 와서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한국인들과 달리 식사가 끝나도 프랑스인들은 자리를 지키며 얘기를 나누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이러한 여유로움 덕분에 프랑스의 식전주 문화와 디저트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은 행정처리에서는 악영향을 끼치곤합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최소 2주의 시간이 걸리고, CAF(주택보조금), AMELI(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의 모든 행정처리가 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사무실을 방문해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몸소 겪은 바 직접 찾아가 문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혹은 며칠 이내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메일로 문의를 하여도 빠른 답변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자동답변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처리과정 및 의문점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기에 프랑스어가 서툴 경우 영어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보르도에서의 교환학생은 어학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수준도 어렵지 않았고, 커리큘럼도 아쉬웠으며 특히 교수님들마다 수업의 퀄리티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교환학생은 정규과정을 수강하여 프랑스의 학부 수업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보르도에서 1년간 생활하였기에 다른 도시를 경험해보고 보르도보다 도시의 규모가 큰 리옹을 선택하였습니다. 정규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이 신청자격으로 B2를 요구합니다. 리옹은 B1만 있어도 정규과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B2를 취득하고 올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B2를 소지했음에도 수업의 완벽한 이해는 어려웠습니다. 교환학생 수업의 경우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도 있으니 프랑스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일 경우 이 수업을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2. 공항 - 학교

리옹에는 생텍쥐베리 공항이 있습니다. PART DIEU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RHONE ALPES 트램이 있으며 가격은 약 10유로 정도입니다. 일반 버스의 경우 GRANGE BALNCHE에서 1E - LES MARCHES DU ROHNE에서 47번 버스로 갈아타면 몸은 힘들지만 훨씬 저렴하게 공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학교등록이 완료되면 리옹2대 측에서 교환학생이 들을 수 있는 수업리스트를 보내줍니다. 수업은 프랑스어로 이루어지는 수업과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으며 책자 내에 수업 내용, 필요한 프랑스어의 수준, 시험 방식 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수업 신청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학부 수업의 경우 본인이 직접 교수님들을 찾아가며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이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찾아봐야하며 간혹 교환학생들이 모여있는 단체 왓츠앱 방에 정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학부 수업의 경우 1학년 수업을 들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환학생 수업과 달리 프랑스인들로만 이루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 말하기 속도 등이 교환학생 수업과는 확연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은 CM(대규모수업)과 TD(소규모수업)로 나누어지며 CM 수업이 TD보다 성적 받기가 수월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수업 2개, 학부수업 2개, FEMI(교환학생을 위한 프랑스어 수업) 1개, 총 5개의 수업을 들었으며 학부수업의 경우 CM수업에서 이론을 습득한 후 TD수업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FEMI 수업의 경우 개강 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이 배정되며 일종의 어학원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리옹2대의 경우 다인실, 1인실 등 여러 가지의 기숙사가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1인실을 선택합니다. 1인실의 경우 공용주방을 사용하는 CHMBRE형과 주방이 방 내에 존재하고 더 넓은 STUDIO형이 존재합니다. CHAMBRE는 한달 271유로이며 약 80유로의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UDIO의 월세는 약 400유로이고 약 180유로의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리옹2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및 스포츠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리옹의 다양한 명소들을 설명을 들으며 방문할 수도 있고 승마, 펜싱,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만 25세의 학생들은 월 25유로의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두 번 씩 학생들에게 각종 채소, 식료품, 생활용품들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링크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하며 학생증을 꼭 지참하여야합니다.

리옹은 흔히 미식의 도시로 불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BOUCHON’이라는 리옹 가정식을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프랑스 외식물가는 확연히 비싼편이며 쌀국수가 그나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10-12유로, 15유로 미만)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르도 한 식당에서 6개월 간 서버로 일했으며 프랑스어로 전화받기 및 전화하기, 프랑스 문화 습득, 직원들과의 친목 등 정말 다양한 경험 덕분에 프랑스어가 조금 더 빨리 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바를 하게 된다면 주방이 아닌 서버처럼 손님들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프랑스 곳곳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TGV MAX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한달에 약 80유로라는 가격이 부담되지만 특정 도시를 공짜로 횡수 제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공짜표가 풀리는 도시는 랜덤이며 성수기에는 표가 많이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리옹-파리의 경우 공짜표가 많기 때문에 원없이 파리를 방문할 수 있을것입니다.

프랑스 지리적 특성 상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을 버스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비행기 보다 훨씬 더 소요되지만 가격은 저렴합니다. 리옹은 스위스 제네바와 정말 가깝기 때문에 한번쯤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물가가 프랑스보다도 비싸고, 프랑스 유심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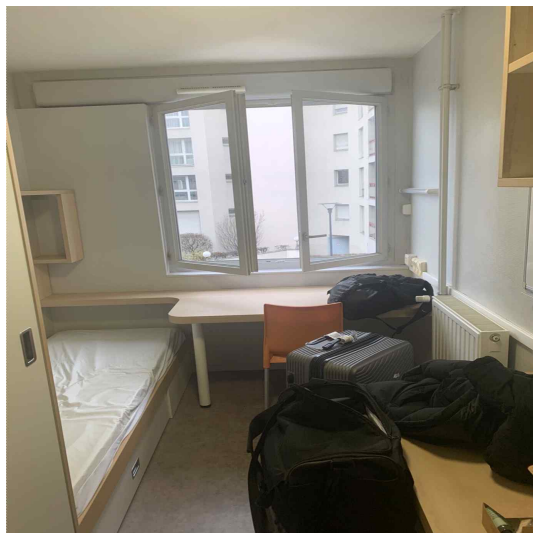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저희 학과에서 교환학생을 갈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학기만 이수한 후 귀국하곤합니다. 최근 몇 년간 1년 동안 머무르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재정적 부담, 시간적 부담, 정보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1년 이상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학과 내에서 제가 처음이었기에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프랑스어 실력의 성장 및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꼭 프랑스언어문화학과 학우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와 프랑스어를 습득하기에 한학기라는 시간은 정말 짧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경험이라는 목적도 좋지만 프랑스언어문화학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랑스어에 뜻을 가지고 알찬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보고서를 마칩니다.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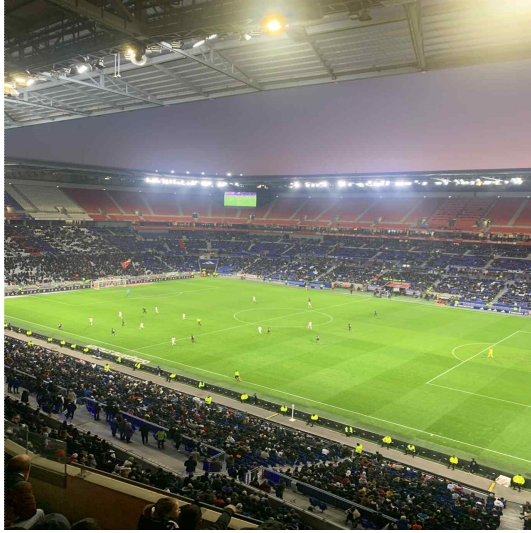
(기숙사 내부)



(리옹2대 외부)



(리옹2대 내부)



(그루와마 스타디움)



(론강)



(떼뜨 도흐 공원)